東亞日報

十六日 夕刊 (土)

編輯兼發行人 白寬洙
印刷人 張錫台
京城府光化門通一三九番地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옴 가렴증 青山膏

# 프軍續續要地占領
## 人民戰線軍南北兩斷
## 西赤色政權崩潰在邇

【사라고사十五日發同盟】連日의 猛攻에 依하야 드디어 待望의 地中海岸의 要衝비나로스를 占領한프랑코軍은 여와同時에 비나로스南北에서 挾攻하야 [illegible] 占領하고 이에 프랑코軍은 北으로는 [illegible]南方의 [illegible]南은 베니[illegible]에이르는 三十키로의 海岸地帶를 完全히 手中에 너헛다 이리하야 빠르셀로나、바렌시아連絡의 道路는 勿論이어니와 電信連絡에 이르기까지 프랑코軍에 依하야 完全히 遮斷되어 海上交通以外는 連絡不能에 陷하엿다 地中海上도 優勢한 프랑코軍 艦隊때문에 行動의 自由를 奪取되고잇으므로 人民戰線軍의 領域은 이에 全히 南北二分의 悲運에 빠저 [illegible]는全혀 孤立狀態에 빠지게되엇다

【사라고사十五日發同盟】프랑코軍의 右翼部隊는 十五日 비나로스占領에 依하야 드디어 待望의 地中海岸에 프랑코軍旗를 飜揚하고 사라고사의 總司令部를 歡喜에 날뛰게하고잇는데 一方갓사·바리도 兩將軍指揮의 프랑코軍左翼中央兩部隊도 戰勝에 빗나는아라니다 右翼部隊와 呼應하야 同部隊의 確保한 비나로스北方六十키로의 戰線을 바라 制押하야 人民戰線軍은 이때문에 後退를 마지아니치못하게되어 地中海岸에서의 프랑코軍의 確乎한 地盤獲得에 依하야 全히 孤立에 빠지[illegible] 赤色政權의 崩潰도 이제 目睫間에 追頭하엿다고 한다

(寫眞은 프랑코將軍)

# 히總統訪伊前에 佛國首相도訪伊
## 英佛伊關係의緊密化圖謀
## 佛伊間一切懸案解決

【巴里十五日發同盟】英伊協定으로 [illegible] 交涉의 成功에 刺戟하야 佛蘭西政府도 英國政府의 [illegible] 伊太利政府와의 사이에 佛伊關係交涉을 開始할 意向인데 달라디에 首相은 來五月三日 히틀러總統이 [illegible] 訪問하기前에 交涉을 開始하기로 決定하엿다고한다 [illegible]

### 本庄大將親任式 來十八日擧行?

【東京電話同盟】傷兵保護院總裁로 決定한 陸軍大將男爵本庄繁氏의 親任式은十八日宮中의 [illegible] 擧行될터이다

## 체코救援義務 佛國에 업다
### 佛一下院議員談

【巴里十五日發同盟】[illegible] 秋에 佛蘭西는 체코救援의 義務 [illegible] 바르텔미氏 [illegible] 如左히 述하고잇다 [illegible]

# 天長節祝賀式
## 總督府節次方法通牒

[illegible] 天長佳節은 [illegible] 總督府에서는 十六日官通牒으로써 總督府各局長、官房各課長及各所屬官署長에 通牒하엿다

一、官廳、學校等에서 奉拜式及祝賀式을行함에當하야는 [illegible]

二、府邑面에잇어서는 府邑面民 [illegible] 神社、神祠、學校、[illegible] 周知方法을 講究할것

## 地方長官異動 內定

【東京電話同盟】岡田長崎縣知事의 傷兵保護院副總裁拔擢에 伴한 同院二局長、厚生省職業部長專任及이에伴한 地方長官異動에對하여서는 十五日厚生省、內務省首腦部間에 詮衡結果如左히 內定하고 十八日臨時閣議에 附議하여 正式決定하는同時에 御裁可를仰하야 十八日發令하기로되엇다

傷兵保護院副總裁에 長崎縣知事 岡田文秀
長崎縣知事에 埼玉縣知事 川西實三
埼玉縣知事에 富山縣知事 土岐銀次郎

# 山海關佛國守備隊 滿洲國領土不法占據
## 滿洲國側에서嚴重抗議

【山海關十五日發同盟】佛國守備隊의 滿洲國領土不法占據에關하야 山海關國境警察署大瀨署長은 十四日午後三時 佛國守備隊에 그루세르守備隊長을訪問하고

一、速히自發的으로 現狀回復을實施하기바란다
一、이러한 不法行爲는 當署에서 斷然코 默視할수없다
一、佛國側에서 自發的撤去가없을때는 我方에서 이를實施한다 그境遇發生을 豫想케하는紛爭의 責任은 佛國側에잇다

라는嚴重抗議를 提出하엿다 이에對하야 그루세르隊長은 佛國守備隊의 行爲는 모두 天津駐屯軍司令官의命에依하야 行한것으로서 自己만으로는 確答할수없으니 司令官의 來着을기다리기바란다고回答을延期하엿다 佛國側과의 交涉은 十五日夕刻부터 再開되고잇는데 滿洲國當局은 旣定方針을 堅持하고 相對方의 態度를 監視하고잇다

## 斷乎한手段講究

【新京十六日發同盟】山海關에서의 佛國守備隊의 不法越境事件에對한 滿洲國三個條의 要求를中 [illegible] 外務局으로서는 [illegible]

### 市民歡迎裡에 兩艦大連入港

【大連十六日發同盟】練習艦隊八雲、磐手의 兩艦은 十六日午前九時三十分 大連에入港 埠頭로는 [illegible] 關係各官廳의 [illegible] 小旗裡 兩艦은 第三埠頭에繫留되엇다

# 軍部政黨모두支持
## 近衛首相辭意毫無（法相의會見談）
### 專任厚生相은野人中에서

【東京電話同盟】鹽野法相은十五日午後二時四十分荻窪의 荻外莊으로 近衛首相을訪問 最近의政局不安의 諸說에對하야 內閣强化 時局打開의 具體案에對하야 여러가지 意見交換을하고 同三時十分辭去하엿는데 會見後鹽野法相은 左와如히 말하엿다

總理는 時局打開方策에 對하야 非常히 眞摯하게 생각하고잇는 모양이다 이제 그만둘생각은 全無하다 近衛首相에 對하여는 軍部政黨 其他各方面이모두 全面的으로 支持하고 잇으므로 擧國一致의 輿望에應하는 意味로 [illegible] 厚生相의 決定이 第一로서 總理도 그點에는 同感이엇다 候補는 [illegible] 野人이 選任될것이다 [illegible] 內閣强化 [illegible]

# 飛行機一千臺를
## 英政府米國에注文（AP通信）

【워싱톤十五日發同盟】最近英國政府는空軍充實計劃을 遂行하기爲하야 米國으로부터 約一千臺의 軍用機를 購入하려고 計劃하고잇다 [illegible] 英國政府는 米國으로부터 [illegible]

人氣百點 바ー出現! [illegible]

## 蘇聯外交官中 逃亡者續出狀態
### 歸國命令을듯지안는다

[illegible]

## 獨滿修好條約
### 伯林에서交涉、遠締結

【東京電話同盟】滿洲國政府는 [illegible]

## 빈손擴張案
### 米上院本會議에廻附

【華盛頓十五日發同盟】[illegible]

# 各部隊包圍網縮小 大靑山方面掃蕩
## 三州山系의北側殘敵潰走

【上海十五日發同盟】[illegible] 北方에서 數百의敵을 包圍하야 [illegible]

## 三飛行場爆擊
### 空中戰後十五機擊墜

【上海十六日發同盟】海軍當局十六日午前十一時發表 [illegible]

### 十倍의敵擊退

【蚌埠十六日發同盟】[illegible]

### 臨時閣議

【東京電話同盟】十六日의 臨時閣議는 午前十一時四十分 首相官邸에서열고 近衛首相、杉山陸相、永井遞相을除하고 各閣僚出席 傷兵保護院關係人事를 決定한後 [illegible] 首相官邸에 貴、衆兩院議員代表를招致하고 [illegible] 協力을要望하기로된것을 報告하고 正午散會하엿다

## 陸軍戰時 給與改正

【東京電話同盟】[illegible]

### 橫說竪說

▼佛、伊間의 新 [illegible]

諸名士と— 丹頂チック

東京 大塚理髮店主談

[illegible]

TANCHO
丹頂
純植物性 專賣特許
손쉽고、虛費업고 經濟的!
丹頂チック
구 직
パリー製に優る

微笑!

# 時局下의信念强調 學童의氣風振作

## 學生의物價節約、廢品利用等

## 學校家庭의聯絡協調

# 滿洲의營農期切迫 二次八百戶移民

## 緣故者와渡滿證所持者에優先

## 關門三個所에는外務員派遣

영농을 [illegible] 조선농민의 만주이수에대하여는 [illegible] 一회분이난 이민의 이식을마치고 만주국에 연고를가진 자유이민의 이송도 선정되어가는데 만주이수를희망하는자중에는 만주국내에 연고를 가지지안흔사람이만코 또한이주술을 가지지안코서 만연도만하는사람이 [illegible] 당국에서는 가능지사에 통첩하야 만연도만을 저지하는동시에 신의주、도문、[illegible] 등지에 외무부원을 파견하야 [illegible]

# 自殺한洋服店員

## 三〇人生悲劇의作家

# 朝鮮古藝術을絕讚

## 感激한 佛릉브랑大統領

## 趙舞踊使節에게握手 請해

# 中毒九千名

## 冷麵中毒五百八名

## 河豚中毒二百餘名

# 만시방을 두엇다고 며누리 머리잘러

## 시성[illegible]한 시어머니의 일

# 新堂町土幕村의喜劇

# 淸津의兩靑年

## 國防獻金欠로上京

# 少年雇傭人 六千圓橫領

## 昨夜旅館에서被捉

# 齒醫合格者

# 惠山鎭一帶에降雪 積雪二尺、交通杜絕

# 資源愛護、廢品蒐集

## 銃後報國强調週間의實行行事

## 京畿道情報會에서決議

# 시울에또名物 妓生學校認可

## 普通、本科、專修三科

# 新任敎員에 召集코訓示

# 官公署學校 廿六日休暇

# 西署檢索에 强盜容疑被捉

# 스포ㅡ츠

## 延專體育部內 自轉車部新設

# 天氣豫報

京城地方 今夜는맑엇다흐렷다明日은맑엇다흐렷다

◇槪況 [illegible]

| 京城氣溫 | |
|---|---|
| 昨日의最高 | 13.6 |
| 昨年보다 | 2.4 |
| 平年보다 | 3.0 |
| 昨日의最低 | 6.0 |
| 昨年보다 | 3.6 |
| 平年보다 | 2.4 |
| 今朝의最低 | 2.1 |

| 地名 | 氣溫 | 降水 |
|---|---|---|
| 新義州 | 8 | [illegible] |
| 平壤 | 7 | [illegible] |
| 仁川 | 2 | [illegible] |
| 京城 | 5 | [illegible] |
| 江陵 | 3 | [illegible] |
| 釜山 | 7 | [illegible] |

私設電燈의出現
農山漁村의福音!! (都市地帶에도必要함)
滿光商行

우리옷감 때국싱망목

無刺戟性殺菌消毒劑
マーキユロクローム
賣藥原料로特히推奬함
金剛製藥所

東亞日報購讀請求所
金剛商會

新興番椒粉 고초가루
우동·소바·五目其他여러가지반찬에 고초가루
月美人印
黑川與兵衛商店

文官試驗
天一藥房

帳簿係數名採用
三陽商會

溫突紙 朝鮮紙 製造都賣
全北紙物商會

專賣特許 肥料素
アイスクリーム 冷凍機

東亞案內

家庭好職 實用新案

合夏物 大衆向
羅紗洋服荷揃
スポン、レインコート、ジャンバー
田中商會

眼科 耳鼻咽喉科 金滄鎬醫院
京城府樂園町一四一
電光③一八五番

ビクターの電蓄とラヂオ
優秀なる製品・驚異的精能・破格の廉價
R-122型 ¥130
R-106型 ¥110.
R-103型 ¥95.
R-101型 ¥75.
ビクターラヂオ
ラヂオ兼用蓄音器
RE五型・二一〇円
RE三型・三二〇円
RE四八型・四八〇円
JE七型・二一五円
R-E 48型
京城本町 山口樂器店
京城鍾路 山口鍾路支店

愉快한氣分으로 經濟的으로 社交하실분은 御各本位 實質主義
親切이奉仕하는天一館으로!
모든物價는暴騰하엿사오나 從前과變함업시特價로奉仕합니다
すき燒 朝鮮料理 天一館
京城瑞麟町
電光八二一一番

新民謠 새로운동무 있지나 마라요
明朗한양주
金福姬 金海松
朴丹馬
빅타
KJ-1157

株式會社 漢城銀行
頭取 林茂樹
本店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支店
出張所

**어★린★이★日★曜**

동물이야기

# 뱀은 어떠케 기어다닐까

蘆川兒

뱀! 하면 벌서 이마를 찌푸리고, 침을 뱉는분도 게실 겝니다。옛날부터 뱀에 얽힌 여러가지 미신과 또 흉시하고 무서운 이야기가 만히 잇는데 그 생김새가 대가리[illegible] 기다라코 긴 몸을 거리며 두 가지진 빨간혀를 낼름 거리는것이 어찌 생각하면 징하고 기분을 상케하지만 설고 더러운것이나한 동물은 아닙니다。또우리조선에는 그러케 거나 무서운 뱀도 잇지 아니합니다。뱀은 발이 없는데 무슨재주로 그러케 잘 두 기어다닐까? 뱀에는 멧백이란 수 만흔 등뼈가 잇어서 몸을 마음대로 굽흘 거릴수잇고 또 갈비뼈도 만흔데 다른동물처럼 등뼈에붙어 잇는게 아니라 [illegible]이 떠러지어가지고 어서 마음대로 움직일수잇게 되엿읍니다。그리고 갈비뼈는 배에깔린 비늘에 연대엿어 이비늘을 조종합니다。그래서 기어가려면 몸을 [illegible]기려는 동시에배때기 비늘을 세웟다 눕혓다해서 앞으로 나가는것입니다。뱀이 제대가리 보다 몇곱절더큰 [illegible]지 개구리를 통채로 집어삼키는 것을 흔히 보게됩니다。어떠케 생각하기에는 그러케 큰 것을 [illegible] 배가 더 [illegible] 또숨이 맥기지안케 용하만 합니다。그러나 뱀의식도(食道)는 꽤 넓고 폐(肺)는 공기를 만히 드리마서서 오래동안 숨을 쉬지안어도 견대도록 되엿답니다。하지만 [illegible] 사리에 [illegible] 못하고 잇이야 되며 [illegible] 시기를 기다립니다。

언제가 기다란 개고리를 게우내버린뒤 붐미를 잡아먹고 배가 불룩해저서 가도오 못하는 뱀을 어떠케되나? 보자고 긴 드럿드니 한참동안 버둥기리 배속에 섯 아야 다라날 싯을 보앗읍니다。그런데 아조 숙이[illegible]을 안 잇든 개고리가 얼마 뒤에 숨이노라 뭐이 가겟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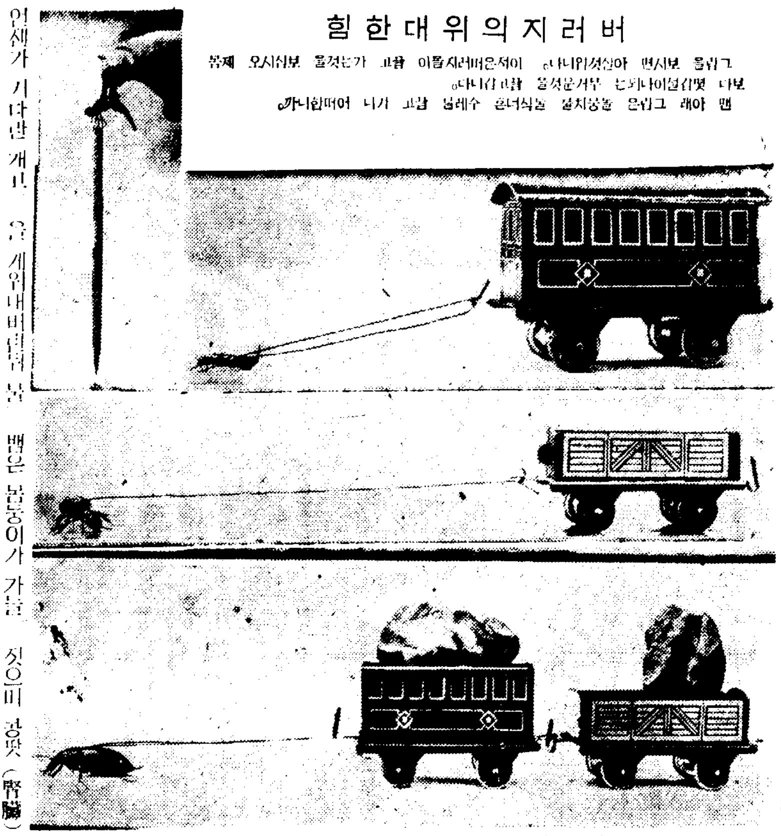
뱀은 몸뚱이가 가늘고 길기때문에 내장의 빈해진것이 벌스럽습니다。폐(肺)는 왼편게 퇴화(退化)햇고 바른편것이 몸뚱이처럼 길게 느러젓으며 공팟(腎臟)은 바른편께 앞에붙엇고 왼편께 뒤로달렷읍니다。

피부에세온(體溫)을 조절할 기능이없는 뱀파 개고리가튼 동물을 냉혈(冷血)동물이라 하니다 냉혈동물은 기후가 변해지면 견대지못하므로 기온이되면 땅속으로 들어가서 동면을합니다。열대지방에서는 더위를 못견뎌 하면(夏眠)을 하고요。

뱀의종류는 천이백종(種)도 더되서 형상의 묘한것도 만습니다。제일 큰 뱀은 아푸리카와 마레지방에잇는 금사(錦蛇)의 종류로 기리 십메돌이 넘는것도 잇답니다。구사뱀의 뒷발에 양편발톱이 잇읍니다。이것으로 미루어 뱀도옛날에는 발을가젓든 것을 알수잇읍니다。

## 애기네판

우리집에선 애기네판을 어머니가
보시구 할아버지두 보시대요。
그래 진순이는 이시 세상에 나
자를 보니까 그림만 보구 애기 한대요
이제 애기네판 그림을 보는
엄마 얘 어디가 아파시 이러케 누
잇수 — 약방이다。잇지 엄마。
해서 어머니가 읽어 주섯답니다



버러지의 위대한 힘

그림을 보시면 아실것입니다。이적은버러지들이 끌고 가는것을 보시오 제물보다 몇십배나되는 무거운것을 끌고잇습니다。맨 아래 그림은 [illegible] 수레를 끌고 가니 어떠합니까。

## 童話動物園

# 꾀 만흔 토끼

◇……尹星湖

옛날옛적에 동해(東海)바닷속에잇는 용왕(龍王)의딸이 병이들어 벌서 여러날이되엿는데 만흔 의사가 치료를하고 온갓백약을다 써보아도 병은낫지안코 여전히 알코만잇섯드랍니다。그런데 하로는 어떤고명한 의사가 진찰을 해보더니 『이병에는 토끼의 간(肝)을 약에써야 낫는다』고 말하엿지요。그래서 용왕은 여러신하들을 모아노코 의론을하엿읍니다。그러나 깊고깊은 바닷속에 토끼가 잇을리가잇읍니까? 첫재로 토끼가 잇어야지 간을 구하지요。그래서 여러신하들은 서로 처어다보고 한숨만쉬엿읍니다。이때에 거북이가 용왕앞에 썩나서며 『신이 육지에나가서 토끼를 잡아가지고 오겟습니다』 하고 말을하니、용왕은 곳 여러신하들도 대단히 기뻐하엿읍니다。

그래서 그길로 용왕께 하직하고 떠난 거북이는 밤낮없이 헤엄을 처서 어떤 육지로 올라섯읍니다。거북이는 一단정신이 토끼만나기가 소원이므로 열심히 기여서 어떤조그마한 산에 당도하니 마침 토끼한마리가 양지쪽에 안저서 재재재 놀고잇드랍니다。거북이는 『옳지됏다』 하고 얼른 토끼앞으로 건너가서

『여보 토끼님、저바닷속에 섬(島)하나가 잇는데 여기저기 바위가잇고 밭이섯는 숲좋은 고러 깊숙한 숲과 맛잇는 과실이 가지마다 잇을뿐아니라 사시장춘(四時長春)으로 춥고 더운일이 없으며 고약한짐승과 사냥꾼 냉새들이 범접을 못하니 당신이 만일 그섬으로가면 평생을 근심없이 편안이 잘 살리다』

하며 여러가지 달콤한말로 무척 꼬이엿읍니다。그랫더니 토끼도 마음이 솔깃해서 한번가볼생각으로 『그러면 가치가지』고 허락을 하겟지요。이소리를 듣자 거북이는 곧 자기잔등을 돌려대서 토끼를 업고 바다우에 떠서 헤엄처 갓읍니다。

○……○

거북이는 어떠케 기쁜지 아무리참을래야 참을수가없어 바닷길로 一二…리가량 헤엄처 가다가 등에업힌토끼를 돌아보고

『내가 무슨 성심이 뻐저서 그런 조흔곳으로 너를 업어 다주겟니、사실은 우리 용왕님딸이 병이들엇는데 토끼간을먹어야 산아난다하기에 이애를 쓰고 내가 지금 너를 업고 가는게라』

하며 토끼의 가련한 신세를 비웃는듯이 거북이는 쓰디쓴 웃음을 웃엇읍니다。이말을 들은 토끼、얼마나 가슴이 선뜩햇겟읍니까? 넓다란 바다에서 뛰어내려 도망칠수도없고 그러타고 그대로 업혀가면 꼭 죽엄을할일이 엇지됏고 얼른 꾀 하나를 내가지고 가장 실망이나한듯이 얼굴빛을 변색하며

『아뿔사 아까 내가 하도 속이 답답하길래、간을내서 께끗이 씻어서 동바위틈에두고 어데에 안젓다가 네가 하도조르기로 그만 잇어버리고 그대로왓구나! 나는 간없이도 산단다。이길로 돌아가서 내가 간을 찾아줄테니 너혼자가지고 가려므나』

하고 아조 그럴듯이 능청맞게 말을햇읍니다。거북이는 이말을 믿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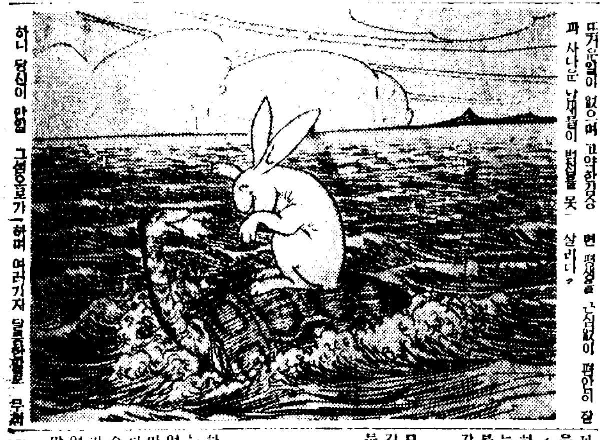
『참말이냐?』 하니 토끼는

『애그럼 너언제내게서 속아보앗니?』 하고 어서돌아가기를 재촉햇읍니다。그리하야 거북이는 오든길을 향하야 헤엄처서언덕밑에다닷더니 토끼가깡충뛰어 언덕우로 올라서며 거북이를돌아보고

『애이 미련바보같은 자식아이 세상에 간없이 사는짐생이어데 잇던? 법정이게답을 생색없는 죽엄을 시키려고 애를쓰느냐? 할일이없거든 내자식이나지거라』

하며두귀를 종긋하고 고만풀밭속으로 뛰어들어갓읍니다。이러케 속은 거북이는 하도기가막혀고개를푹떨어 느러트리고 힘없이바닷속으로 들어갓읍니다。(끝)

(三國史記)



## 어린이作品

# 세톨이더먹지요

京城花女子小學校五年 崔英珠

一、나는 동생하고
소꿉장난을하는데 양식이없지요。
그래서 엄마보구 먹을것주나라구 졸랏드니 엄마는
이리저리 찾어보시드니
찬장에서 밥을꺼내시드니
동생하고 나하고 노나주섯지요

二、내밥은 입분떨
동생밥은 얼롱
그래서 동생밥이 세톨이더
만치오。

# 바다가

李聖洪

바다가 무래밭에
손구락으로
내이름자 크다라케
써서두면요、
작난쟁이 물결이

## 少年野談

# 忠臣金后稷

(충신김후직)

아저씨 (21)

신라(新羅)임금 진평대왕(眞平大王)께서는 임금이되시지 얼마 아니되며부터 매일같이 산양댕기시기를 질겨하야 자고나면 산양개(犬)와 매(鷹)갈등것을 몰아가지고 이산저산으로 쏘다니노라고 나라일은 아소홀구지 아니하야 민에잇는 신하들이 모다 근심을하고 지냇으며 만백성들은 도탄에 빠지엿습니다。

이때에 김후직(金后稷)이란신하가 잇엇는데 이분은 임금님의 산양댕기시는것을 말려보려고하로는 임금님앞에나가서

『임금님 예날부터 한나라의 임금되신이는 날마다 나라의 모든정사(政事)를 잘 하고 또연구하며 곁에서 간하는 바른말하는 신하가잇으면그 의말을 어떠케여여서 잘못된것은 고치고 또바른일만해야만 나라가 흥왕하고 백성이 편안하게되겟이어늘、오늘날 임금님은 미친 사냥꾼들과 어우러지시어 날마다 개와매를 노와산과들로 산양다니기로만 일을 삼으시니 이러고야 우리신라나라가 어찌 앞날이 평안하오릿가? 대왕님 부디산냥다니시는일을 이후부터는 그만두시고나라일에만 전정을 쓰십소서』

하고가장 간곡한말로 눈물을흘려가며 간청하고 빌엇읍니다。그러나 임금님은 조곰도 이사람의말을 귀담어들으시지 안으시고도로혀 화를내시며

『이놈 그래내가 조화서산양을 다니는데 네가감히 나에게 산양을그만두라고 말리느냐? 너같이 버릇없는 신하는 어서바삐눈앞에서 보이지말어라。』

하시며 연이야 병사(兵士)를 시켜대궐밖으로 몰아냇습니다。어갈이 쫓겨남바은 김후직은그후에 자기집에들어앉어 답답하게 세월을 보내다가그만 병이들어마침내 이세상을 떠나게 되엇읍니다。그가장사 눈물감고 죽으려할때에 그는자기아들삼형제를 불러앞에앉치고 그쪽들어간 눈으로부터 눈물을 흘리며

『나는 남의신하되어가지고 임금님의잘못을 고처드리지 못하고그만 숙어지는것은 [illegible] 마땅이 아니다。대왕께서 그대로 산양을 즐겨하시다가나라를 망하게하시지도 [illegible]데만인이러케 [illegible] 그 잘못을 고처지안으시면 숙어가는이몸인들 어지 방목을수가 잇느냐? 비록 숙어서라도 대왕의 잘못을고처들이려하니 내가 죽거든 나의시체(屍體)는반드시 임금님이 산양다니시는길엽에 묻어다오』

하고 아들셋에게 단단히 유언(遺言)을한후 그만 가시고말은 어지못가고 이세상을떠나 아조숙엄의 나라로갓읍니다。

그후에 김후직의 아들들은 자기아버지의 유언대로 무덤을 임금님이 다니시는길엽에 무엇더니 하로는 진평대왕이 산양나가시다가서 이길엽을 지나게되엇는데 얼마를 지나가지니까 어데서인지

『임금님 임금님、제발산양은 가시지맙시요』

하는 아조 슬프게 애원하는소리가 바람에싸히여 은은이 진평대왕의 귀에들려왓읍니다。

이소리를 들으신 임금님、따라오는 신하들을돌아보시며

『이게 무슨소리냐? 누가 날더러 산양을가지말라고 말하느냐?』

하시고 곧 그소리나는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실을조사해오라고 [illegible]섯읍니다。

그리하야 그곳에가서 전후사실을 알아가지고온 신하는 임금앞에엎드리며

『임금님、그소리는 김후직이의무덤에서 나온소리올시다。김후직은 얼마전에 그가숨질때에 자기아들들에게 부탁하야 자기 무덤을 임금님이 사냥다니시는 길가에 묻어달라하고 죽어서라도 임금님의 사냥다니시는것을 간하여보겟다고 하엿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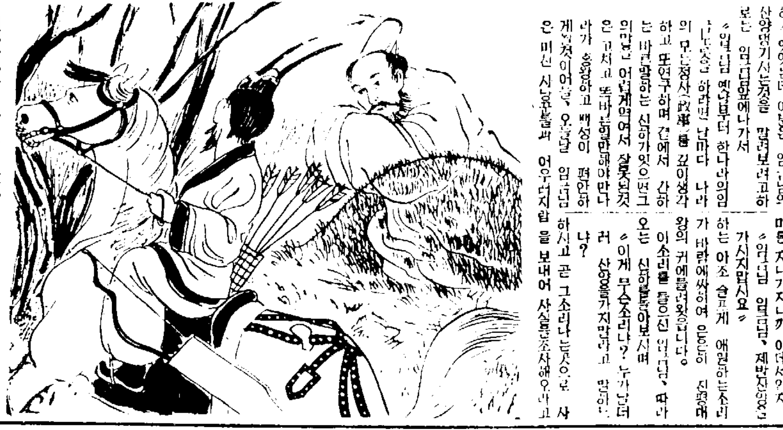
하고 김후직이가 숨질때에 하든애기를 자세히 여쭈엇읍니다。

이말을 들으신 진평대왕、그만 고개를 푹숙이시고 얼마동안이더니 눈물을 흘리시며

『고맙다、김후직、나의잘못을 충고하다가 쫓기여나는데 숙어서까지도 나를 잊지안코 이러케 깨우처주니、내가만일 이버릇을 고치지아니하면 앞으로 내가숙어 무슨낯으로 그를만나보겟느냐? 어서말머리를 돌려 대궐로 돌아가자』

하시고 인하야 환궁(還宮)하신후에 그날부터 사냥[illegible] 하시든 부대쫓고 개와매를 없애버리며 사냥에쓰던 활과창을 모다 꺽어버리게하엿읍니다。

야간이 숙어서도 임금님을 잊어버리지아니한 충신 김후직의충혼(忠魂)으로인하야 그간이 사냥으로 일삼고 나라일은 돌아보지안튼 진평대왕은 마침내 마음을고치어 그후에는 아조 훌륭한 임금님이되어 만흔 착한일을하야 만백성이 아조 평안히 잘살앗답니다。……(끝)……



ルージュ
紅として一番のクローバー
(베니 서로 제일 조흔 구로바)
口紅 ホ、紅
合資會社クローバー化粧品店에잇슴
東京 三葉商會 大阪

肺病全快法
肺病은고친다
잘못된養生法
올흔療法
無料送呈합니다
慶南山 德林寺

名花 南一鶯 無敵盤
流行歌
마즈막血詩 四〇八〇一
흘겨본他国땅 四〇八〇四
青春빌딩 四〇八〇五
백沙工이조와 四〇八〇六
콜럼비아레코-드

M 1324
驅虫 マクニン
아安全!
나인못은박어
드러온蛔虫은
내지안으면危險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

就職近道 第四期 奉天
大滿測量學院 生徒募集

奉天測量學院生徒募集

最大ナ設備ト最古ノ歷史輝キ・技術的權威アル教授網羅
新學期 自動車學生大募集
南大門自動車講習所

自動車運轉手黄金時代出現!!
朝鮮總督認可 京城自動車學校 生徒募集

優美館
笹野名槍傳
新選組
軍使

日活 西洋と日活
國民皆兵令
空中劇場
壽茶館

松竹キネマ
4月11日→17日上映時間表
微笑む人生
母ぞよく知る
明治座

東洋劇場

府民館
裴龜子樂劇團
特別二種
暴風警報
해바래기

## 朝鮮文學現象의再檢討

# 文學의現代的過程의分析

㊁ 朴英熙

前者는 科學萬能에서 敗北하야 그곳에서 생기는 悲哀와 懷疑를 呼訴함이오、後者는 唯物萬能主義에서 敗北하고 그곳에서 回避하야 寫實하엿든 本質를 探求하려는 努力이다。

表現主義文學에서는、그들의 憂鬱한 情懷를 遠慮없이 表現하엿다。그러나

**現代** 文學에는 아직 現代人의 氣質을 [illegible]하게 하는 表現이 [illegible]다고밧에 할수없다。

하못한 情緖問題가 文學의中心點이엇갓이 되엿으니、[illegible]한 唯物主義에서 失敗한作家의 神經衰弱化한것이나、또한 情緖問題만이 文學의 全部는 아니나。詩에잇어도 그러하고 散文에 잇어도 그러하나。

엘리옷이 藝術論에서 우리가 본바와갈이 文學이란것이 感情를 表現하는것이라 하엿으나 勿論 本質的에 하나이지만 그情緖를 具體化시키는 內容이 또한 必要한것이다。

그런데 現在朝鮮文學에 잇어서는 무엇보다도 形式과 情緖이 缺乏하다。

**前者** 는 詩文學에서 말할수잇고、後者는 散文에서 찾을수잇는것이다。

最近 數年來의 朝鮮文學은 그 方向을 잃고 目標를 잃으려고 努力하엿다。唯物主義에 對立을 어지못하는作家들이 그方向을 찾고저 文學史의 [illegible] 寫實主義와 心理主義、即 超現實主義文學의 潮流를 보게되엇다 그리하야 寫實主義는 [illegible]에서 더만히 是非되엇고 超現實主義는 詩에서 나타낫다。

그러나 唯物主義에서 逃避한部隊는 [illegible]한 新傾向의 作品이 나타나지 못하고말엇다。이와 갈은 狀態에서 物質主義에 逃避도 되지못하고 精神와 寫實한 描寫도 되지못하엿다。

그러면 超現實主義의 詩는 어떠하엿느냐하면 그것은 한개 사람의 詩가잇音韻으로 [illegible]

**姿態** 를 삼주고잇어서 그 청조차 가장 [illegible]時代에 解消하고 말엇다 散文世界가 沈滯되엇을때 詩文學의 正體이 決코 無味한[illegible]가 아니것으나 이 超現實派의 詩는 너무도 그魅力이 喪失하엿다。너무도 瞬間的의 存在이엇다 그後의 今日에 出現한 新傾向이기는하나 多少의 文學的傾向을 가지고 나타나는 詩人의 出現이 今後의 朝鮮文學의 方向과 傾向에 對하야 또한 [illegible] 되지 아는바도 아니다。

그러나 朝鮮文學은 健實한 情緖에 서지못하고 一種의 [illegible]와 갈이 어렷봇이 그輪廓이 보이면서도 늘 [illegible]的인새로 그作品을 創作하고 잇는것이다。이러한 그 裡面에는 어떠한 文學的 理論이 [illegible]되어 잇는지 다시 探究해보는것도 無意味한것이 아닐줄로안다。

**一篇** 의 藝術的— 文學的 作品이라는것은 大別해서 要素를 論[illegible] 形式、藝術的內容、技術的 要素이니 그런데 이 세가지 要素가 適當히 分離되지못하엿을때에 作品에는 어떤지 무르게 間隙을 사이게 하는것이다。

朝鮮의 現在文學에 잇어서는 이 三大要素가 [illegible] 이다고 보기어려웁고 그러므로 이곳에서 새問題를 提出하고 잇는것이다。現在의 朝鮮文壇의 大部分은 [illegible] 作品活動하고잇는作家들의 作品의 大部分 [illegible] 이 三大要素가 分散的으로 發展하고잇는 [illegible] 形象을 보이는데가 만흔것이다。[illegible] 內容、主義 [illegible]

素[illegible]에 잇어서도 世界文學의 作家中에서도 思想性에 關聯된

**作家** 의 作品이 보다더 高貴하엿것이 事實이며 그作品의 印象이 깊은것이다。

가령 「입센」의같은 그作家가 [illegible]한 事情를 받으면서도 그反面 熱烈한 支持를 받고 今日까지 읽어지는것은 그의 思想性이 偉大하기때문이다。만일 그의 作品에서 思想性을 빼어버린다면 아주 하잘것없는것이되고 말것이다 「톨스토이」나 「도스토예프스키」의같은 作家의 作品도 小說人生觀의 偉大한點이 잇는까닭이다。

표—는 그의 美學論에서 말하기를—우리들이 가장 [illegible]할수잇는것은 詩人은 一般的으로 藝術家는 더욱 한편쪽으로는 科學的精神을가지고 現實를 잇는그대로 나타내려고하는 그反面에는 哲學的精神을 가지고 相常 [illegible] 다 잇는現實를 超越하

**알고** 여서 모든것의 根抵에關한 問題를解決하려는데 到達하는것이다」라고 말하엿다。이말에 關하야 「표—」自身의 그다음 解說이잇으[illegible]에서 說明한 引用을 [illegible]와 如何間 作家의 [illegible]한 人生觀이 무엇보다도 必要하다는것을 意味한 말이다。文學이 內容없는 空殼이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또한F—●A●子—의 [illegible]原理에서 보면 사람의 心靈을 刺戟하고 感動하는 것으로서만 詩的價値를 認定할수는 없다。그와같은 刺戟마 興奮은 一時的이나 하엿다 說明하면 文學이 一時的 刺戟物이 될수는 없다는 것이다。이外에는 오래가도 이저버릴수 없는 理想—思想이 그[illegible]—作品[illegible]는 것이다。

그러면 現代朝鮮文學에서 보이는 이興味、그思想性이 무엇인가。그러나

**내가** 이곳에서 말하는것은 朝鮮文學의理想이 무엇인가를 찾기前에 朝鮮文學은 이 思想性에서 倣傚하고 잇는것이다。

—이것은 否定보다도 倣傚이다。이 倣傚의 [illegible]에서는 各自의自由스러운 進步가 잇는것이다。創作方法의 規則도 規則도 없다。갈수만잇으면、各自의 才分에 따라서 그進路를 取할것이다 그러나 一定한 目標와方向이必要하다。이方向의 決定이 없이는 倣傚하게되는것이다。

---

### 作家의心得

鳥木啄

[illegible]의 어떤 詩人의 말로서 다음과같은 [illegible]的인 말을 우리는 어떠게생각해야할까?

「作家貴下—貴下께서는 讀者하나가 千번읽어주기를바랍니까? 또는 十萬의讀者가 한번 읽어주길바라지요——라고 十萬讀者를[illegible]다!」

여기에는 現代作家로서 누구나 [illegible]이 含蓄되어잇다。사실 우리조선서도 作家들은 너무 分外의希望을 지나치게가진다。그들은 大槪가 自己作品을 十萬讀者가 千번읽기를기대하기때문이다。그리고 이것은 根本에잇어 틀린생각이다。

大體로 眞實한 作家는 十萬의讀者를 期待하지안는다。一般大衆을 期待하지안는것이다。그가 信賴하고 期待하는것은 오직 自己뿐이다。그리고 그自己를 表示하야 讀者를選擇한다。自己를 정말 理解해주는한사람을위하야 쓰는것이다。그것이 多幸이 十萬讀者의 共鳴을얻으면 그것은 意外의 天幸이다。이란것이다。그러나 그大幸이 오지안허도 하는수없는일이다。한사람이면 그대로 滿足하는수밖에없다。

그리고 眞實한文學이 作家가 살아잇는 時代에잇어 一般大衆에게 理解되지못하고 後世에와서야 理解되는것도 그때문이다。例를들면 스탄달이 스탄달의 文學의 當時의 讀者에게는 理解되지못햇다는사실과 當時엔 파무쳣든作品이 千年後의讀者에 續[illegible]되는것도 그런理由에서다。우리文壇의 作家中에도 十萬의讀者의 [illegible]하야 저너리숨의 興味만을 追求하지말고 정말 한사람의 讀者를 위하야 쓰는 作家가 나와야할것이다。

(南樹魂)

---

### (漢)春意(詩)

選外

[illegible] 梁濟博

一氣沖和一氣流、
詩情聊與物情由。
陣齊遙浦營歸艫、
盟重芳洲試泛鷗。
卸殺盤桓穪動股、
作心宿草喜舒鈎。
靜觀消長相生理、
自在無爲不在求。

（[illegible]）

### 漢詩募集

「春耕」

韻字 [illegible]吟深心侶

期限 四月二十日

---

### 巨大望遠鏡近間完成

[illegible]個年의時日과 六百萬弗의巨費를들인 世界最大의 [illegible]望遠鏡의 完成이 가까워 世界天文學의 [illegible]一新紀元을 짓는時代가 우리에게 到來하리라。

이 [illegible]望遠鏡의 特點은 지금으로부터 十年前 [illegible]이라는 [illegible]이 [illegible]에 依하야 立案되어 [illegible] 인에이[illegible]가 그硏究를 보지못하[illegible] 九五四番

이 [illegible] 一九三四年十一月 뉴욕 [illegible]가 [illegible]에 着手하야 [illegible]의 [illegible]에 特別[illegible] 그곳에부어젓다。

이[illegible]의 冷却을 一年이나두엇다가 거기서생긴 [illegible]를 特別히 [illegible]로 파로마 山에 보내젓고 以後는 數個年間 [illegible]하기에 [illegible]를 다 하엿[illegible] 最近에 이르러 [illegible]이 終了되어 今後는 約二個年間 [illegible]의 [illegible]을 硏究하야 [illegible]望遠鏡이 그부서[illegible]을 發揮할것은 明[illegible]하리라고。

現在의 世界一인 望遠鏡은 米國 [illegible] 天文臺의 百吋鏡이로 [illegible]鏡은 그크기에도 約四倍、그性能도 [illegible]

### 新刊

▲朝鮮 三月號 朝鮮金融界の現況、新新時代の金融に就いて、時局と朝鮮の商工業 等其他 定價三十錢 發行所 朝鮮總督府 [illegible] 印刷所 京城[illegible]町 三丁目 [illegible]

▲化學工業 四月號 定價四十錢 發行所 [illegible]市 [illegible]町 一丁目二三二 化學工業社 振替東京三三五〇一八番

▲朝鮮工業協會會報 五十七號 定價 [illegible]十錢 發行所 京城長谷川町 朝鮮工業協會 振替京城一六九五四番

---

### 春郊二人行脚

## 京軌沿線

（下）

第三組

文● 林和

畫● 具本雄

이러새로운 環境에 비치는 人間들은 어떤지 더 近代化된 靑年과 갈앗다。

이곳에 關하여는 具氏도 또한 나들間行로 그러이는 비가 [illegible]이엇다。

B書店主는 본시 이 人部生이 아니나와 通路도 얼마인가 살아지니라가 보일터인데 어느 해도 흘린다한다。

그런데 옆에 앉엇든 [illegible]의 中年사나이가 ●살아지 다리는 없어지고 새다리가 된나오●한다。

사실얼마인가 냇가를 지내는데 높이 約二十尺가 [illegible]콘크리트로써안운된 허연 다리가 나타난다。

아직 一里[illegible]에 잇는모양인데 이아래로 한九十八百米突내려가 대럿밧틀은 다 [illegible]더니가 보이는세 살펏다니라인모양이나。

예전엔 이近處에서가장 [illegible]잇는 建築物의 하나는 [illegible]인데 보기에도 本바히 아주 냇바닥에 [illegible]다싶이엇다。

어디라는 뚝섬에서 모아들어오는[illegible]의기로이오 따라[illegible]도 번창하야 이야기 꺼리도 만흔곳이나。

내려보지 못하고 지내는것이 [illegible]이나 [illegible]가보를 [illegible]하고 本線과 [illegible]前에 洪水나면 이야기가 벌어지다。

지금도 여름에 장마가 저 큰물이나면 뚝섬 [illegible]里[illegible]까지 浸水가되나 그前에 벌서일 [illegible]이엇다。

[illegible]에 볼이멀지 [illegible]

뭣지나리가 넘엇나하면 京城市民은 洪水의 危險[illegible] 이나리가 넘으면 여기서부터 往十里 오금수다리 성화의 交通이 끄어지므로 나무[illegible] 野菜[illegible]이 一夜之間에 品切이나 올른다。

그러나 인제 이런物資의 供給中心은 往十里에서 又[illegible]으로 옮아가고 이런 이야기들도인제二三十年前서울서자란 中年이나 늙은이들 記憶에 남아잇을뿐이다。

봄으로부터 여름、가을까지 이電車는 뚝섬간다는니보다 실상은 人工으로 만드러노흔 遊園地를 往來하는게 本分이라한다。

往十里로부터 遊園地까지 가는사이는 몇개 驛이 잇기는하나 乘降客도 別로없고 잇다야 뚝섬驛(遊園地까지가서 [illegible]너 [illegible]에 가다거나 또는 遊園地로 가는손님이 잇을뿐이다。

우리一行이 遊園地에 나렷을때는 夕陽이 누엿누엿西山쪽으로 기울때엿다。

아직 꽃도 잎도 안핀 遊園地는 쓸쓸하엿기도 하고 荒凉그것이 엇으나 亦是 昨春의 繁華에 지친듯한 一種 버리기 어려운 情趣가 잇엇다。

遊園地를 들어가는 길엽에 높다란 防水堤坊들지나면 긴 포푸라숲이 나오는데 이것이 뚝섬엔[illegible] 村이라 할나가 [illegible]村이 되엇을때 風景이 어떠지 좋앗겟으나 이날 우리의 눈에는 그중情趣깊은곳이나에겐 이숲이엇다。

아직 잎도피고 긴줄기들만 거의 한줄기씨이나 들어벗인 한가운데로 내깔린 軌道는 映畵에서보는 森林鐵道 그것 갈앗다。

우리는 車를 나려서도 몇番 이것을 거닐어보고 러시아文學을 조아하는 K君같은 사람은 白樺林갈다고 讚嘆한다。

遊園地는 그리 豪華한 施設은 아니엇다。그러나 바로 江岸에 다아잇고 近處風景이 좋은곳이라 여름하로 消日엔 適當한 곳이 엇다。

그러나 우리는 무료히 분아볼수도 없고하야 江가로나가 本線에서 [illegible]를 한잔하고 寒風[illegible]을 건너가라 하엿으나 타가지고 나온 電車가 이미 떠난지라 우리는 다시 例의 포푸라숲으로 몰아왓다。

나는 오늘의 우리靑年들이 어째서 어떤 荒凉한 風景에 마음을 주는지、제마음이 한개 [illegible]갈아서 그런지는 한참 저물어가는 이림属의 찬기운이 무릎으로 스미는것만 느껴다。

---

## 라디오

### 四月十六日(土)

#### 第二放送

▼六時 라디오노리 「아침[illegible]」 [illegible]어린이그룹

▼六時十五分 [illegible] 指揮 李[illegible] 伴奏 金[illegible]

▼六時三十分 어린이新聞

▼六時 講演 「人生과文[illegible]」 [illegible]

▼七時 뉴-스 [illegible] 天氣

▼七時三十分 講演 「[illegible]과科學」 高[illegible]敎授 安[illegible]

▼八時 피아노 獨奏(레코-드) 一、[illegible] 二、가[illegible] 三、[illegible]

▼八時三十分 京城放送[illegible] [illegible]

▼八時四十五分 [illegible]

▼九時 [illegible]

▼九時卅分(東) 時報、뉴-스、뉴-스解說、氣象通報、明日의 [illegible]

#### 第一放送

▼正午(東) [illegible]

▼午後六時(東) 歌謠[illegible]

▼六時廿五分 講演 [illegible]

▼七時三十分(東) 歌[illegible]

▼午後七時四十分(東) 講演

▼八時(東) 物[illegible]

▼八時二十分(廣) 天[illegible]

▼八時四十分(大) [illegible]

▼午後八時(東) [illegible]、合唱及[illegible] 「[illegible]」中 [illegible]

### 四月十七日(日)

#### 第二放送

▼午前七時二十分 라디오體操

(第一放送에依함)

▼十一時五十分 氣象通報

▼正午(東) 時報 레코-드

▼午後零時二十分 뉴-스

▼零時四十五分 [illegible]

▼一時 [illegible]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 「第一回全鮮都市對抗野球戰」

▼二時三十分 春季競馬實況([illegible])

▼四時 뉴-스

▼[illegible] 野球試合實況—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第一回全鮮都市對抗戰」

▼六時 幼年童話 一、[illegible] 二、[illegible]

▼六時二十五分 講演 「[illegible]」 李[illegible]

▼七時 뉴-스 天氣[illegible]

▼七時三十分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illegible]

▼八時 歌謠曲 一、비에젖는情話 [illegible] 二、春[illegible] 三、[illegible] 四、[illegible] 五、눈물의[illegible] 六、[illegible] 七、[illegible]

▼八時卅分 京城[illegible] 伴奏 DK管絃樂

▼八時卅分 西道소리 [illegible]

▼九時 라디오小說 [illegible]

▼九時三十分(東) 時報 뉴-스 뉴-스解說 氣象通報 明日의 [illegible]

▼九時五十五分 地方으로보내는 뉴-스

#### 第一放送

▼午後零時十分(東) 時[illegible]

▼六時(東) [illegible]

▼七時三十分(東) 日[illegible]

▼八時(東) 俗曲

▼八時二十分(大) [illegible]

▼八時五十分(東) 浪花節

### 四月十八日(月)

#### 第二放送

▼午前七時二十分 라디오體操 (第一放送에依함)

▼十一時三十分 氣象通報 料理[illegible]

▼正午(東) 時報 中[illegible]

▼一時三十分 [illegible] 管絃樂 一、[illegible] 二、[illegible] 三、[illegible]

▼午後零時三十分 뉴-스

▼一時十五分 家庭時間 [illegible]

▼四時 뉴-스 [illegible]

▼[illegible] 野球試合實況 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 「第一回全[illegible]」

▼六時 어린이科學 「[illegible]」 李[illegible]

▼六時二十五分 어린이[illegible]

▼六時三十分 [illegible]

▼七時 뉴-스

▼七時三十分 講演 「[illegible]靑年訓練에對하야」 [illegible] 金七[illegible]

▼八時 一、새타령 二、[illegible] 三、[illegible]

▼八時二十分(東) 管絃樂 一、[illegible]序曲 二、各國[illegible]舞曲 가、[illegible]舞曲 나、노-르웨-舞曲 다、[illegible]舞曲

#### 第一放送

▼正午(東) [illegible]

▼午後六時(東) [illegible]

▼六時二十五分(東) 講演

▼七時三十分(大) 歌謠

▼七時四十分(東) 講演

▼八時二十分(東) 管絃樂

▼八時五十分(東) [illegible]

▼九時三十分(東) 時報 뉴-스 뉴-스解說 氣象通報 明日[illegible]

▼九時五十五分 地方으로보내는 뉴-스

---

### 本社主催 高手對局 博譜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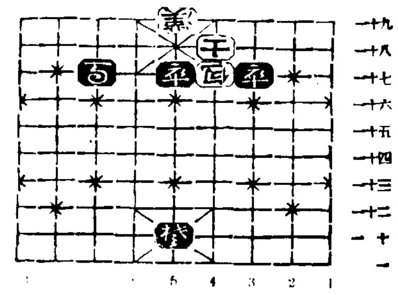
[illegible]手 許[illegible]

[illegible] 夏 泳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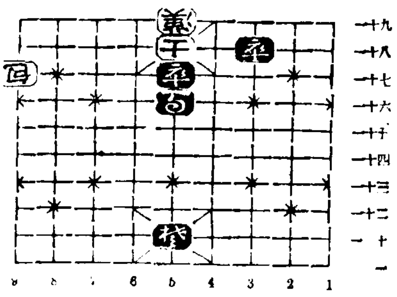
七十七馬六五……七四包七九

七十三象八三……八四士八五

（第十七圖）



（第十八圖）



---

## 實戰經驗不足한黑

# 目標에벗는亂調子

碁家大忌로警戒를促

白十五마의十六에 對하여 黑十 [illegible] 十五는 生[illegible]年來이오 第四마의十七로 라의十七[illegible]한 [illegible] [illegible]生[illegible]이오 第五[illegible]이니 이갈은 [illegible] 六은 [illegible]이니 [illegible]의 目標가 없어 [illegible]의 [illegible]하는 [illegible] 바이니 [illegible]가 [illegible]에 [illegible] 는 碁家의 大忌로써 [illegible]의 [illegible] 警促한다

（[illegible]）

[illegible] 라의十七에 [illegible] 十九는 [illegible] 十六을 [illegible]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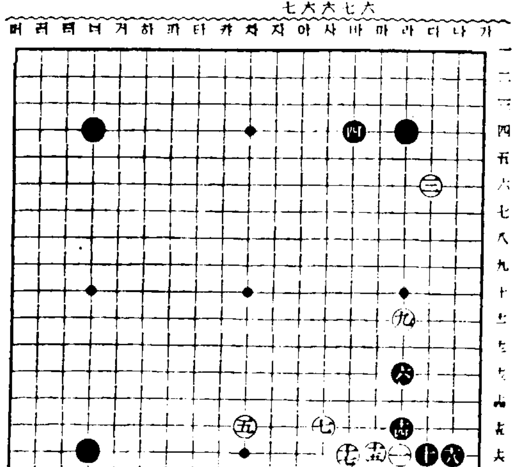
○十五마의十六
●十六마의十七
○十七바의十六
●十八나의十六
○十九바의十七

### 新進 碁士 出世戰譜

三子局

白 盧史楚

黑 張遇冕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十六 十七 十八 十九
三
四
五
七
八
九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十六
十七
十八
十九

---

## 長篇小說 新開地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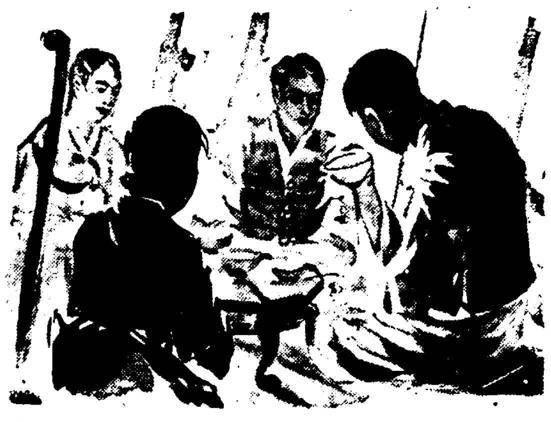
李箕永 作

洪得順 畫

七、나의길[illegible] (十一)

주인은 오히려 [illegible]하야 건구지 못하고 이러케말하는데 하선이는 윤수는 경후와 마주앉어서 마셔를 연거푸 드리켜고나 그대로 무서워하는 눈치를 보이나 명랑하게 취해올르는 타주기 고잇다●

「아하하… 아주머니 부상・주문이 점잔에 …지면서 더욱 [illegible]은 사람을 만나보려니까 방에 말하기 [illegible] 기운이 벅차올[illegible]



「아주머니는 내가 산에 잇다잇다니까 배우이상하게 생각하시지요?」

윤수는 노파를 노려보며 취한 음성으로 부르짖는다。일음에는 열기가 뜨고 자색이 난다。

「그럼—밤중에 산에는 뭘하러 가야 되지안캣서요… 거기는밤에 나온다니까… 그러치만 아주머니까지 어떠케 아실것은 업읍니다 경우 자세는 엔 가만니 앉어만잇다?」

「그럼 가만히 저안두……」

얼굴이 앉어잇든 경우는 맥없이 이자기에게로 돌리는것을 은근히 놓내며 고이쩍게 처다본다。

「이야기를 한번 해야지—자네는 하선이를 조아하지?하하하」

윤수는 뭇는말에 경후는 더욱얼굴이 화끈하도록 주홍이 올리엇다。

「하하하… 그런데 아주머니 내가 정말로 하선이를 주엿스면 가요?」

윤수는 경후를 처다보든 얼굴을 금시로 주인에게 돌려대여는 다。

「아이그… 세상스레 그러한 은 웨해어…자、술이나 들게 어서—」

노파는 불안하게서을 때매라고 만정을쓰며 미소를 감작한다。

「예、어찌오 술은 조흔 어어지오 하지만 재미먼저 들어보서요、아주머니… 참 세상은、묘한 세상입데다。옛날에는、정말인어 중헌하드구 [illegible]一[illegible]千金)이라구 하면 대로 시왕다는데、지금은 그지랄이、어찌두 만호지 모르셋서요、사람을 죽이기도 하구… 그러치안치요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날마다 여인젼개을 한 히 해보시니、대체 정직한 사람을 인연중에 몃명이나 만나 보시적이 잇읍니까?」

「…………」

안주인이 미처 대답을하지못하는 정경 경후가 가루채어 묻는다。

「아니 그럼자네는 그게무슨까닭이지 아는가?」

「무슨 까닭이냐구요?한 까닭은 이아이징 세상에 까닭업는일이 어디잇겟나、정경이구려 … 압이구간에 모든까닭은 잇는게 니。사내만 수염나는것두 까닭이잇고 그지랄을 잘하는사람두 까닭이 잇기에 하는게지…」

「그까닭을 뭐라구하까?」

「…마치 요새돈은 예산 돈보다돈가개가 떨어저서 무서해두드시 사람들도 말이해두 요심이만히저서 그러터하까…」

「…그런데 어떠게 경후 내에 전에기 한마디한께 들어봄라나」

윤수는 다시 경후에게로 시선을돌리며 빙그레 웃어보인다。

「무슨 예긴가? 들구말구」

어려서부터 이야기를 조아하는 경우는 이야기판인다는 바람에가 솔깃해서 눈총을준다。

「하얀에어 한사람이엇는데 어찌두가난하지 모른더래미꾸렁이 몇어살래두 용해이가걸려서 못 때지게……」

벌써부터 하선이는 킬킬 거리고웃는다。

「그래서?」

「시골사람이라、농사를 지어먹고 살엇다。다행히 장가는 잔들어서 가정의 락을 유일한 재미로 지나가거든」

「그러켓지—」

「그런데 그들부치는 땅이지가하해가을에는 간평을 보러나왓더래。아마 그때가 저녁때든지 그사람의 안해가 마침 우물에서 물동이를 이고가는것을 오다가다 마주처보지마지 고만、마음이동해서 견딜수 없드래。그곳처에도 주막이 잇든지、그래 그사람은 주막에서 일부러 며칠씩 묵어가면서 마침내 하회를 ─생각하겟은、주막영이로하여금 그여자를 꾀어내게햇나거든─ 이야기를 듣는가 어떤가?」

「근데、그래서?」

「저런 몸寫질보아。」

노파는 대답하게 윤수의 이야기가 퍼어낫구먼」

「암— 그러치요。바로 그술집 기를 롱해며 천연하게한다。

사녀이 … 그래서오새일로하면 놈쌍이가 목적을 달햇거든。

그런데 그때도 그지랄세상이던지 아편」상회를 한뒤에는 훅 본어 셈인하야 ─ …」

윤수는 원조바다을 벌려들고 휘파람을 내서 속불어 내버리는 신파을 일부러해가며 이야기를 신이나게 하엿다。

「그래서 어떠케 되엇는가?」

경후는 긴장한 태도로 추측한 다시 뒷같을 재속하는데、하선이 무치든 해부리 구들 여닌 뺨썹(?)썩하며 뿐안에 씨힌 두눈이를 당황하게 또고 윤수를 노려본다。

「가만잇서 담배한개 피어물구」

윤수는 몽문청하고 봉사에서 담배삽을 부시여 부석 찾는다

---

◇東亞日報愛讀者大優待◇

# 어느분에게도 三百頁의大冊을거저드립니다

여러분! 자기는꼭무병하다고믿으시는분이 몇분이나 게십니가?! 지금 곳 읽어주십시요

어느분을 물론하고 오래살기를 바라며 무병하게 건강을 보내는 것을 바라시지 안는 사람이 잇슴니까 그러나 자기몸에 무서운 병이 잠복되어잇는 것을 모르시고 지내는 사람이 얼마든지 잇습니다

자기몸은 비교적 튼튼하다고 생각하시나 어쩌다가 무슨 병이 들어서는 지내시다가 어떤 … 병에 걸려 비참한 일생을 보내시게되는 분이 한두분이 아닌 줄을 모르시고 계십니다

피를토하시자

어떤 병에라도 한번 걸리시면 치료하기가 어렵고 또 고질병이되기 쉽습니다

기가허해졌다

가장무서운것은 결핵이라는 병이 잇습니다 …

반드시 원인이 잇어서 병이 생기는 것이니 그것을 어느분이라도 간단히 곳 치실수잇읍니다

지금 의학계에 一大權威이신 東京 ○○博士의 著「… 」를 三百頁大冊으로 드립니다

본보애독자라는 것을 쓰시고 東京市神田區神保町 アルス로 통지하시면 어느분의게도 두권의 귀중한 책을 거저드립니다

## ★…쇼윈도巡禮 ⑬ 三友堂時計店

허고도 연결은 本廳으로水曰廳의 …… 에따라서 時計가 제 벽에는 時計가 縱繼하게 陳列되어있으며 …… 으로의 成功이다 陳列品 ……

[illegible]

## 商品에投票制使用
## 自店의顧客層調査
### 抽籤後賞品도進呈

**宣傳兼해**

販賣能率을 增進하고 …… 通行人 …… 顧客層 ……

[illegible]

## 板硝子工業
### 非常한緊張示現

板硝子工業은 …… 昭和十一年以來 ……

[illegible]

### 南方向重要輸出品
### 綿織物全般에擴張

[illegible]

## 畜牛增殖計劃에呼應해
## 家畜保險統制成立
### 朝鮮農會를統制主體로한
### 補助豫算十一萬餘圓

朝鮮에잇어서의 家畜保險은 ……

[illegible]

### 金及特殊鑛物
### 獎勵金交付
### 總督府殖産局에서
### 그內譯發表

[illegible]

## 朝鮮도松脂採取獎勵
### 農林局서輸入防遏策으로

[illegible]

## 長期戰과商店經營 (五)
### 酒類와食料品類는
### 賣出이相當히不活潑

**食料品店**

[illegible]

**交換室**

[illegible]

## 商品知識

### 砂糖 (下)

[illegible]

## 商品市況

【十六日正午】

## 煉炭價引上
### 今日부터實施
### 三圓八十錢式一齊引上

[illegible]

### 暴風雨에不漁로
### 「조기」又復昂騰

[illegible]

◆食料品　◆農藝藥品　◆家庭用織物　◆砂器類　◆雜穀類　◆高級人絹物　◆皮革類　◆炭類　◆毛皮各種　◆皮革加工品　◆建築材　◆飮用水　◆家畜類　◆漬藥類　◆石油　◆染料　◆塗料　◆新物類　◆洋藥類　◆家畜飼料　◆本絹物　◆農具類　◆漆器類　◆油類　◆鑛物　◆肥料　◆農産加工品　◆交織物　◆毛絲類　◆陶器類

[illegible]

本社推奬 著名商店案內

寫眞機械及材料
京城鍾路三丁目七十六番地
池商會
電話光化門二六六〇番

京城鍾路三丁目
絹綿布現金問屋
東順德

京城鍾路二丁目
東亞婦人商會

營業種目
時計 眼鏡 貴金屬 寶石 記念品 徽章 各種
三星堂時計舖
京城鍾路

京城府鍾路二丁目
洋品 百貨店
德永合名會社

シンガーミシン
楠商店
京城府鍾路二ノ七

# 祝朝鮮志願兵制實施

★★★ 內鮮一體 ★★★

大阪電通提供

---

# 服の色で白くなる

# モンブラン錠

빛이하여지는
モンブラン錠

藤本順博士創製

大阪市西成區千本通一丁目
製造元　モンブラン製藥所

全國有名百貨店藥店에있合

---

# 性의不滿

# 回春의길봄

理想的劑이시는藥リバイタル에對하야

京都市四條大宮町

京大藥物研究所

---

株式羅針報

長期・短期
現物・國債

大阪株式取引所一般取引員

# 武田憲治郎商店

大阪北濱一丁目
電話代表北濱三番 四番 五番

---

和光堂

# 마루도 마ルトル肝油

新發賣

理想的美味 滋養劑

和光堂

MK01

---

# 中風はよくなる

病の根となる濁った血液を浄化し、病毒を除く新療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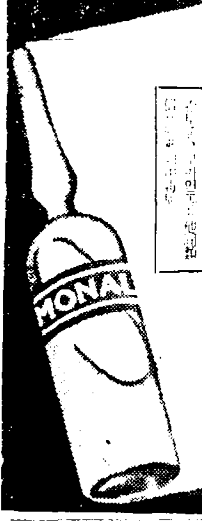
頭痛・眩暈・逆上・눈앞이컴컴・肩臂痛・눈이흐리고・動悸・不眠・耳鳴・便秘・性慾減退・手足의痲痺不隨・語訥

全國百萬의同病者여
이길분소리를드르시라

---

# 모루히네中毒最新治療劑

# 福モナール



順天堂化學研究所
田邊五兵衛商店

---

# 白なまづ

白、赤、斑點

明石市相生町

長壽園

---

# そこひ目

삼눈
고름드는눈
白內障
綠內障

明石市相生町眼科專門藥院

---

# 有望な軍手の製造業

農林省이推奬하는堅實한勞働

卽時에利益을볼수잇다

直脇製造家를各地에募集함

合名會社 朝日軍手製造所

---

女の命は黑髮
髮の命は白椿

純良椿油

# 白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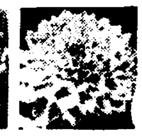
大阪心齋橋
本家 さくら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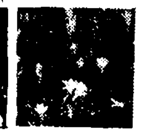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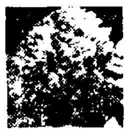
# 春の園藝指針

本紙愛讀諸位에게日本最大農場 株式會社薔薇園이珍花種苗를大特賣하오니 (箱代送料・無料의一大奉仕)

問題의特賣







다-리아

카-네-숀

가-베라의新種

쥬베로-스

구라지오라스

간나

班入葉카라-

아자레아

四季咲의薔薇

仙人掌

睡蓮

草花種子

秘藏朝顔

特賣1 薔薇의最新銘花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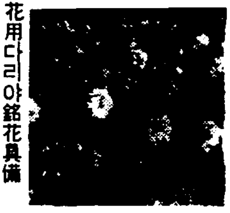
特賣2 구라이미구로-스의特賣

特賣3 直受咲 切花用다리야銘花具備

特賣4 폰폰菊의銘品種

特賣5 朝顔秘藏八寸咲

特賣6 果樹를심으시오



大特典

一、箱代送料의無料奉仕

一、植物實際의作法進呈

注文은

御注文は

兵庫縣川邊郡山本

株式會社 薔薇園植物場

振替口座 大阪三四七九番

# 까소린節約策으로 自動車夜間運轉停止

## 沿岸船舶港路回數도縮少

## 慶南交通業者의協議

【釜山】 현하 비상시국의 대응책의 하나로 가장중요 문제로 되어잇는 「까소린」절약 문제는 전국적으로 논의되어 잇는바 경남 도당국에서도 이문제의 대책을 협의하고저 지난 十四일 관계교통업자 十八명을 도회의실에 소집하고 신중 협의한결과

一、오후十시 三十분부터 오전五시까지의 자동차 야간운전을 중행자외는 전연정지할것

一、대형·빠쓰·의 운전회수를 감소할것

一、연안(沿岸)의 선박항로 회수를 축소할것

등의 대체의 의견을 보게되어 [illegible] 열니는 시국대책 위원회에 부의하야 그결정을 보리라는데 [illegible]

### 城東小校感謝會 【釜山】

[illegible]

### 裡里邑屠畜數

【裡里】 전북 이리읍 [illegible] 지난 十二년도 도축(屠畜) [illegible] [illegible]

### 躍進群山貿易額

#### 지나三월에만二千萬圓

【群山】 [illegible]

### 原案撤回는難産이나

# 圖書館新築決定

## 釜山府會懇談會에서遂決定

【釜山】 지난十四일 [illegible]

### 官寧郡農會主催 栗木栽培講習

【官寧】 [illegible]

### 滿洲移民座談

【光州】 [illegible]

### 同僚를毆殺

【光州】 [illegible]

### 속이아내다고

[illegible]

### 餘滴

[illegible]

### 消息

[illegible]

# 總工費三十萬圓으로 晉州羅佛川改修起工

【晉州】 [illegible]

### 南原農校入學式 【南原】

[illegible]

### 非常時局에犧牲된 愛犬塚新建設

【裡里】 [illegible]

# 鳥致院大火

## 損害는四萬圓

【鳥致院】 지난 十四일 오후九시 三十분경에 [illegible]

### (雨)

[illegible]

### (雹)

[illegible]

## 中央線의難工事

# 竹嶺터늘大進捗

## 明年二月貫通豫定

【榮州】 [illegible]

### 論山金融組合定總

【論山】 [illegible]

### 少年轢傷 【大田】

[illegible]

# 激讚받는朝鮮米

## 最優良種「旭」이壓倒

【釜山】 [illegible]

### 安溪穀物受檢組合創立總會

【安溪】 [illegible]

### 棉作品評施賞

#### 梁山郡農會서擧行

【梁山】 [illegible]

---

中篇小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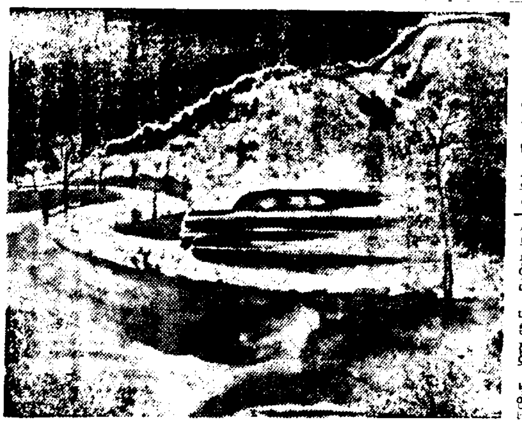
# 第三奴隷 (45)

李根榮 作

盧壽鉉 畫

### 불없는火爐 (四)

[illegible]



[illegible]

---

부인의건강법!

결혼후에 몸이약해지고 애기를못낫는 원인은무엇인가?

여러분가운대 이와갓흔증세가 잇나입나 자세히 보시기바랍니다

첫재로

[illegible]

둘재로

[illegible]

셋재로

[illegible]

넷재로

[illegible]

이신문

[illegible]

七大博士推奨

부인병에 命之母

主効

[illegible]

價

[illegible]

本舖 [illegible]

우테나크림

ウテナクリーム

花印 コールド

强力의榮養素가 色白한健康 肌를創造!

봄은空氣中에塵埃나 不純物이만하야 살결이더러워저여드름吹出物等 살결거츠름의原因을맨듭니다!

お肌の要求する榮養

살결에는休養과共히榮養이必要합니다。 ウテナコールド는有効脂肪性의强力榮養이살결에滲透하야、皮脂의分泌를調節하고、新陳代謝를旺盛히하야여드름吹出物이나잔주름、트림을解消하고、빛이는美麗한若肌를創造합니다

素晴しい四重效果!

清掃에 [illegible]

榮養에 [illegible]

美容에 [illegible]

濃化粧 [illegible]

아츰마다柔軟한 若肌를培養하는就寢前의맛사-지!

美麗한살결을培養하라면 必히就寢前에ウテナコールド로맛사-지하시오。 [illegible]

正確한맛사-지法은…

[illegible]

ウテナ化粧料本舖 株式會社 久保政吉商店

# 週末主要株利廻

（本社經濟部調査）

株式　拂込　配當　時勢　利廻

▲金融　[illegible]

▲紡績　[illegible]

▲取引所　[illegible]

▲鐵道　[illegible]

▲電氣　[illegible]

▲雜種　[illegible]

【備考】本表中時價는 今十六日午前十時 京城標準 ◇右表中、朝鮮鐵道、同二新、同三新、同四新、南鮮合同、同新、朝鮮電力、同新、朝鮮動力、北鮮製紙、[illegible]、朝鮮革皮는 無償落時勢이며 小林鑛業은 權利落時勢이다

## 投資議論

# 場外賣買

## 當然히違法

【問】地方現物商에서 三百圓의 證據金을 納入하야 現物賣買를 假裝하고 實地는 取引所의 時勢에 依하야 中新三十株의 短期淸算取引을 行하엿읍니다 그 結果 五百餘圓의 損失이 되엇으므로 證據金을 除한 二百餘圓의 損失金을 請求해 왓는데 支拂할 義務가 잇읍니까

【答】名을 現物賣買에 假裝하야 取引所에 依치안코 取引所의 時勢에 依하야 差金의 授受를 目的으로 하는 行爲는 賭博又는 民法第九十條에 所謂 公의 秩序善良의 風俗에 反하는 事項을 目的으로 하는 法律行爲及取引所法 第三十二條의 五에 違反하고 法律上無效한 것입니다 [illegible]

# 公債賣行約八億圓

## 今年初以來의成績자못良好

## 政府支拂도漸進捗

最近에 잇어서의 政府支拂의 顯著한進捗에 따라 日銀手持公債는 續續하야 好賣行을 示하고 잇는데 十三日의 日銀重役會에 잇어서의 津島副總裁의 報告에 依하면 今月十一日現在로 月初來의 政府支拂은 이미 八千七百萬圓에 及하얏고 公債의 賣却高는 年初來累計 七億九千三百萬圓으로 이는 年初來의 日銀公債引受總額 七億八千五百萬圓에 比하야 이미 이를 超過하는 形狀이다

## 事變國債

### 六割賣盡

四月十五日부터 全鮮의 郵便局所에서 賣出한 第一回支那事變國債의 賣行은 依然好調 [illegible]

## 叺增産對策協議

### 十六日關係官會議開催

[illegible]

## 財界瑣信

◇朝鮮油脂拂込徵收　朝鮮油脂에서는 [illegible]

◇朝鮮臨時總會 [illegible]

▲商銀異動　商業銀行仁川支店은 十五日부터 開業하엿는데 [illegible]

## 追擊砲

◇殖銀서는 [illegible]

◇ [illegible]

# 텅그스텐鑛

## 品貴로時勢漸高

### 標準物五千三、四百圓

[illegible]

## 北支麥粉市場

### 獨占의形勢

【北京十四日發同盟】[illegible]

# 無煙炭不足

## 明年[illegible]緩和豫想

無煙炭의 [illegible]

## 洋灰引上

### 十錢引上申請

[illegible]

## 朝農臨時總會

### 共濟特別會計設定

[illegible]

# 七月末限萬瓲移出入

## 硫安販賣會社協定

【東京電話同盟】內地、朝鮮의 硫安販賣會社는 [illegible]

## 朝鐵線買收와

### 今後經營方針

朝鮮鐵道는 明年度以後에 期待되는 私鐵買收其他로 主要線路[illegible]

## 朝鮮運輸同盟

### 支部長會議開催

[illegible]

# 國際收支調査規則

## 全文今日公布

[illegible]

第一條 [illegible]

第二條 [illegible]

第三條 [illegible]

第四條 [illegible]

第五條 [illegible]

# 殖銀産金資金

## 實際貸出을開始

### 百五十萬圓認可

殖銀取扱의 産金資金은 [illegible] 百五十萬圓으로 [illegible]

## 東拓蔘與事務設置

[illegible]

## 東拓臨時總會

[illegible]

## 政府米移送

### 山下汽船이落札?

[illegible]

## 昨年今日·今年今日

（四月十六日）

| | 昨年 | 今年 | 比較 |
|---|---|---|---|
| ◇株式（前場單位十錢） | | | |
| 滿新 | [illegible] | 36.7 | [illegible] |
| 東新 | 167.0 | 126.9 | 40.1低 |
| 鐘紡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期米（先前十前場單位錢） | | | |
| 仁川 | 33.20 | 32.05 | 1.15低 |
| 大阪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正米（單位錢） | | | |
| 京城 | 32.40 | 31.30 | 1.10低 |
| 仁川 | 32.40 | 31.30 | 1.10低 |
| ◇正租（穀良都單位錢） | | | |
| 京城 | 9.20 | [illegible] | [illegible] |
| 仁川 | 9.20 | 9.00 | .20低 |
| ◇純金（市中賣單位錢） | | | |
| 京城 | 13.20 | 14.50 | 1.30高 |
| 東京 | 13.40 | 14.30 | .90高 |
| ◇綿布（京城標準單位圓） | | | |
| 三A | 182 | 282 | 100高 |
| 太陽星 | 182 | 282 | 100高 |

# 今日의市況

【四月十六日】

株式（單位十錢）　[illegible]

期米（單位錢）　[illegible]

正租　[illegible]

正米（單位三等）　[illegible]

商品（單位十錢）　[illegible]

## 株式

### 時勢와市況

# 低迷

## 賣氣不熄

### 前場低付

[illegible]

## 鐘紡增資問題

[illegible]

## 戾賣依然

[illegible]

## 高價買는不續

[illegible]

## 財海餘波

▲米國서는 [illegible]

# 米界情報

## 當分他動

### 時勢

### 政策、物價注目

【東京】[illegible]

## 期米

### 繼續

# 下落

### 前場續落

[illegible]

## 國債

### 賣物薄

# 小高

【東京電話同盟】[illegible]

### 朝取長期

[illegible]

## 米豆餘塵

[illegible]

## 各限保合

[illegible]

## 正米

### 各地

# 弱含

### 京城續落

[illegible]

### 仁川軟調

[illegible]

### 群山續落

[illegible]

### 大邱軟調

[illegible]

### 木浦小低

[illegible]

### 釜山弱含

[illegible]

## 群衆大接戰

[illegible]

## 大阪買仁川賣

### 鞘取賣買流行

[illegible]

## 堂島前場情報

[illegible]

## 內外金銀時勢

（四月十六日）

| | | 買 | 賣 |
|---|---|---|---|
| 海外金銀 | 倫敦金塊一온스 | [illegible] | [illegible] |
| | 換算一匁 | [illegible] | [illegible] |
| | 倫敦銀塊 | [illegible] | [illegible] |
| | 紐育銀塊 | [illegible] | [illegible] |
| 京城金銀 | [illegible] | 14.10 | 14.50 |
| 公定買入 | 朝鮮銀行 | [illegible] | [illegible] |
| | 日本銀行 | [illegible] | [illegible] |

## 海外經濟

▲紐育株式　[illegible]

▲外國爲替　[illegible]

## 金融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　[illegible]

▲安東商況　[illegible]

## 商品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橫濱生絲　[illegible]

▲各地人造絹　[illegible]

▲阪神綿花　[illegible]

▲阪神麻油沖値　[illegible]

▲京城綿布　[illegible]

▲麥粉時勢　[illegible]

## 正米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地方正米　[illegible]

## 雜穀

▲京城時勢　[illegible]

▲仁川時勢　[illegible]

▲地方正租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 株式

東京短期取引　[illegible]

朝取短期取引　[illegible]

## 期米

[illegible]

株式　期米
王
京城黃金町
仁川本町
マルタマ取引店

益
京城　仁川
金益證券
益康